

자주
여성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셔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시집대

제 8 대 함께 튼튼히 세우는 총여학생회

이땅,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강물같은 스물을 넘어

우리들의 어머니가 당당히 그버하셨듯

한많은 이땅 대청에서

지쳐 돌아온,

맑은피 흘리는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싶네

온가슴 넉넉히 힘이 되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나면서부터 웃목으로 던져져 버린 이름석자

화려한 자본시장에 상품으로 팔려버린 쫓쫓한 손길

착취에 한걸 더 착취를 받는 식민지 조국이라면

이제는 내 손으로 당당히 찾아오겠네.

온몸에 감긴 더러운 굴레 당당히 끊고 오겠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갈라진 땅 갈라진 그리움

우주열차를 내리는 간절한 염원이 되어

전 곳곳에

떠나는 너도나도

통일의 꽃이고 싶네

진정 이렇게 아름다운 이 땅의 딸이고 싶네



'92 학번 새내기들에게.

지금 우리는 다들하고 총여학생회 임원들라의
모모지를 하시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더욱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신성해 보여요. 얼마 있으면
배게 될 신입생여러분들의 참신하고 신성한 모습은 떠올
라게 되는군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여정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 앞으로
학교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과 항상 함께할 수 있겠지요.
학생회관 2층에 저희 방(총여학생회실)이 있어요.
뭇방까지만 마음 뉘운 언니·누나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테니 많이들 놀러오세요.

그리고 이것 한가지 많은 잊지마고 살아갑시다.
이땅, 이 사회의 절반인 여성으로서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밟고 내가는 당당한 민중시대의
여학생이라는 것을!

힘차게 대학생활의 첫출발하세요!

나라앗기 48년 2월 10일.

총(부)여학생회장 원선영 드림
박은주

총여학생회는요...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중 총여학생회는 특히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천하는 곳이지요. 총학생회가 있는데 따로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학우들의 처지와 조건이 다르고 그속에서 남학우들과는 다른 특수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왜 똑같이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졸업후엔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남학생들과 동등히 행동하고 당당히 내 의견을 주장했을 뿐인데 왜 드센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왜 여자는 밥길은 무시워해야 하지? 더우기 오히려 피해여성만 한평생 고통에 신음한다던데...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왠지 그에게 의지하고 말아버리게 된다. 어자란 원래 그런 존재인가?”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이런 의문을 푸는데 총여학생회는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옳게 인식하고 문제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들 모두 당당하게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우리의 단결로만 풀 수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체전, 여학생한마당 그리고 우리여학우들이 주도하여 준비하는 각종 행사들을 통해 여학우들의 단결을 도모합니다.

“휴게실에는 남학생들의 자욱한 담배연기! 들어가 같이 쉬는 것도 썩스럽고... 우리가 쉼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하는데.

여성용품 자판기가 고장났어요! 몇개 더 설치하면 안돼요?”

생활속에서 흔히 느껴지는 여학생들만의 작은 요구들.

총여학생회는 이런 여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 대해 고민은 하지만 자칫 일상생활에만 매몰되기 쉬운 우리 여대생.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극복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왜곡된 인식을 떨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설라 동시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부터 총여학생회는 함께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여학생회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여분의 참여없이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학우 여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총여학생회란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판 소개
오늘 썬바퀴
꽃으로 살아
-들불-

이 책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비

-운정모, 풍백

미군부대 총첩의 스트립걸이었던 주인공이 남편의 투옥 등을 통해 이 땅의 모순된 현실의 원인이 미국인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인간해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그 사회 여성들이 목은 인습과 억압의 굴레에서 얼마나 해방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은 곧 여성의 비인간화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문제의 본질을 자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해방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8대 함께 튼튼히 세우는 총여학생회

-〈선전부〉

길고긴 겨울을 보내고 막 92새내기요 출발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총여학생회 선전부는 총여학생회 사업의 내용, 의의, 성과를 학우들에게 알리려고 비판까지 뛰어넘어서 해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여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년 중요한 선전사업에 함께 하신 참신한 여학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세요.

아직도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연사부〉

제8대 튼튼 총여 연대사업부는 이웃여성의 연대를 그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이땅의 젖줄 여성농민과 함께 하는 농향,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탁아소방문, 지원활동을 하는 탁아소활동, 이 시대의 정신대라고 할 수 있는 기지촌여성과 함께 하는 기지촌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92년도 연사부에서 중점적으로 벌여나갈 사업은 탁아활동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못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므로 해서 탁아소에 맡기게 되는데 이러한 탁아소들은 대부분 비영리이고 보조금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총여학생회에서는 탁아사업에 관심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민중시대 모든 여학우들과 여성에 대한 건전한 사고를 가지신 남학우라면 환영합니다. 학생회장 2층 총여학생회에 오셔서 멋진 연대사업부장(허계90 권옥녀)을 찾으세요.

제2의 정신대 - 기지촌여성

1. 들어가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만 6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180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기지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지촌은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또 기지촌 미군들의 새로운 수요창출 때문에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여 하나의 거대한 존락을 이루어 수십만명이 모여 살아갑니다. 기지촌에서는 미군들에 의해 일반인, 매춘여성, 부녀자, 아동의 폭행, 미군에 의존하는 상업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의 권리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2. 기지촌여성들의 생활

기지촌에는 미군전용 순집인 클럽이 있는데 이곳은 내국인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고, 미군과 내국인 여성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럽지대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내국인을 상대로 매매춘에 종사하다가 팔려오는 경우와 바로 이곳으로 오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클럽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보통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기준은 클럽과의 채무관계여부나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클럽에 빚을 지고 있는 여성들이 기지촌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빚은 짊어진채 이곳으로 팔려와서 클럽에 기거하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형은 클럽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클럽에서 파는 술값과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받는 화대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 보통 1,000-5,000씩 하는 술을 미군에게 몇잔을 팔았는가를 계산해서 총액수의 50-80%를 클럽에 자릿세로 제공하고 나머지 20-30%를 여성이 갖게 됩니다. 또 텃무(기지촌 직업여성중 나이들어 중간소 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함)에게 주어야 하는 손님 소개료와 하숙비를 제하고나면 이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또 미군의 증원방식이 직업군인으로 변환에 따라 미군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허허충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여성들이 겪는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영어를 모르

기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기지촌여성과 미군의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미군헌병이 미군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기지촌여성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예사이고 국제결혼을 해서 이민을 갔어도 영어를 모르기때문에 집에만 갇혀지내야 하는 이들의 생활은 이들을 철책없는 곳에 가둔 격입니다.

그리고 기지촌여성들은 매주 한번씩 성병검사를 받기위해 검진소를 가야만 하는데 만약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즉, 성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3-4일 동안 낙감자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생계대책이 전혀 없어 이들 기지촌여성들은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들이기 위해 하루라도 큰집생활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성병진료소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맺음말

올해 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정신대에 대한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신대는 일제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 대신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땅의 여성들은 정신대 못지않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제도와 체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매춘여성은 흥미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저 아할 우리의 언니, 누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물러나고 이 나라에 민주정부가 세워질 때만이 기지촌여성의 아픔이 치유되고 진정한 여성해방, 나아가 민족해방이 될 것입니다.



“엄마, 걱정마!
난, 공부만 할거타구요.”

(졸업생이 신입생에게)

속한번 안씩이고 컸던 큰 땅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데모하지마라, 나더 뭉기전엔 연애하지 연애하지 마라, 이러쿵 저러쿵 걱정하시던 엄마에게 내가 했던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을 보기 좋게 깨고 하지않았던 것들만 다 하게터리라는걸 그때 어찌 알았으나.

사실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내심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컸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밤새워 연구하고 고민하는 대학생의 모습을 꿈꾸며 대학생만 되면 낭만, 우정, 사랑 등등을 다 얻게터리라 부푼 가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을 채 보내기도 전에 대학의 현실에서 벗어나야했고 우리 또래들과 함께 열심히 가슴앓이, 용서하기를 해야했다. 그동안 20년을 살아오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교라서만을 파며 길은 인간관계와 폭넓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우리에게, 대학의 자유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곤욕이었기 때문이었다. 술마시고 함께 불잡고 웃어도 보고 선배들과 이런저런 문제로 열띤 토론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럭저럭 사람들과 친숙하게 만나는법을 알게 되었고 대학의 분위기에도 익숙해지면서 나는 이제까지와는 또다른 새로운 고민을 해야했다.

이제까지는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없었던 사회문제들, 나라는 영 상관이 없을 것 같던 정치문제, 경제문제 등, 한마디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를 움직이게 바라보는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 윤리시간에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는 등,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달달 외워야 했던 우리는 정작 내가 역사와 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구체적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는 전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나, 직업만을 걱정했을 땐, 커다란 파도처럼 내 존재는 하찮게 느껴졌던 것 같이 느껴졌던 사회가 점차 전반적인 이해를 더해가면서는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그 속에서의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대학에 와서는 이런저런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면서 다시 내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에 몰입을 알아야 했다. 여자로서의 문제, 사실 그전까지의 나는 압전

하고 소극적인 여학생이었고 '착한여자컴퓨터'에 걸렸다고나 할까. 주위에 서 말하는 양가집 급수(?) 기준을 다 맞추려 하면서도 내심 당당하고 활발하게 생활하는 몇몇은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대학교기엔 나의 소극성과 나약한 태도가 내 대학생학을 보냈었게 보내는데 많은 장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조장하는 개선해야만 하는 (!) 문제임을 알면서 점차 내가 오랫동안 원해왔던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4년간의 대학생학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요년 조년 것을 잘해본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대학문을 들어서 며 원했던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그전에는 생각 못했던 더 큰 것들을 안고 대학문을 나서는 기분이다.

지금도 취직문제나, 취업이만 보이는 딸이 어떻게 살까 염마는 이러쿵 저러쿵 걱정이 많으시지만 그럴때는 언제나 "엄마, 걱정 마세요, 자신 있답니다요."

잠깐 소개

어머니의 길 -이소선 어머니 의 회상, 돌베개

1970년 11월 13일, 이 땅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알리내기 위해 전태일 여사는 온몸을 불사르셨습니다. 이 책은 전태일 여사의 어머니님인 이소선 여사의 삶을 쓰고 있습니다. 전태일 여사의 죽음 후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는 그분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오신 이소선 여사의 삶은 곧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빨치산의 딸 -정지아, , 실천문학사

평등한 세상,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신념만으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 들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역사의 일보전진을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이순없는 민중들의 전형이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그러면서도 억압받아왔던 현실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서술하였습니다.

"사랑이 뭐길래"가 뭘니까?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시립대 교정에 들어서서 배봉산 등지에 쌓인 눈이며, 도서관이며, 여기저기 붙어있는 대자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새내기 후배야.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멋진 사랑도 이루고 싶을거야. 하지만 학교도 사람 사는 데니까 밥먹구 똥누구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못되어가고 있는 풍경들이 조금씩이라도 배어있는 곳이란다. 대발을 자처하는 남학생 동기며 예비역 선배도 많을거야. 네게 잘해주지만 결국은 네 발전이니, 이상이니 하는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말이야. 물론 그건 그사람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구,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헤쳐가야 할거야.

"사랑이 뭐길래"에서 나오는 지은의 처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더 있느냐고 네가 항변하는 소리가 들린다. 결국 그런게 아니냐고. 하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면 거기 나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감정적으로는 진짜지. 낭만적인 사랑이고. 하지만 사랑이 서로의 발전을 도와주는 것, 구속이 아닌 해방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거야. 자기 사랑을 진짜로 만들려면, 그때는 싸울 수 밖에는 없지. 우당탕 쿵쾅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신을 '결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 안주시키려는 생각과 싸우고,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헤쳐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싸우고, 성역할을 분리해 놓고 그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와도 맞서야해. 그건 단지 가사역할 분담이니 그런 것만은 아니란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여성을 우리는 군인숙취 사건에서도 보고, 자신의 평생일터를 가꾸기위해 싸우는 여성들 속에서도 볼 수가 있지. 결국 그건 하나로 이어져 있어,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하고, 그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해 질 수 있는거야. '나'는 '우리' 속에 있고, 그 '우리'는 '내'가 주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거니까.

어디선가 '사랑이 뭐길래'는 진실없는 재미에 성공했다는 글이 써있더구나. 진실한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도.

사랑을 하려면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건 이성애 대해서도 그렇고, 네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수난당하는 조국에 대해서도 그럴게다. 열심히 살고 사랑하자, 우리.

투쟁은 즐겁습니다!

*이 강훈의 시 「그해 봄날의 푸른 빛 플랭카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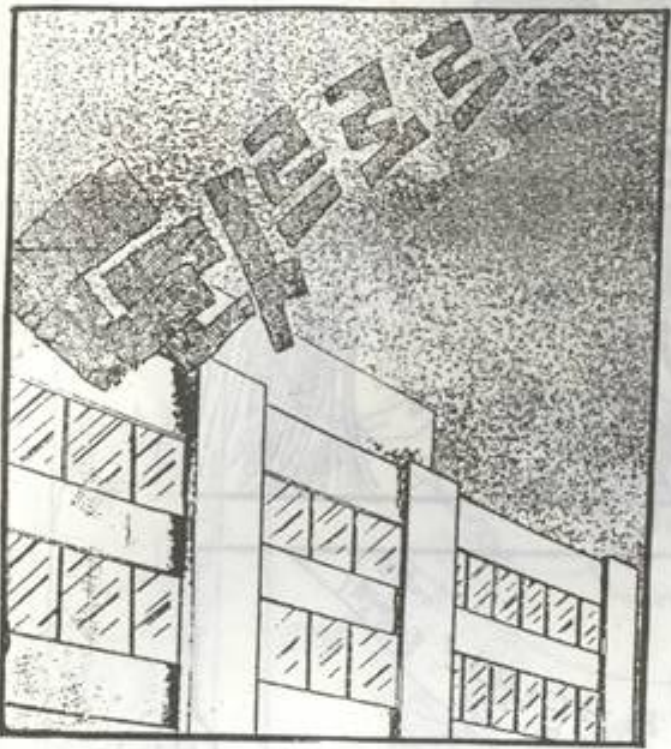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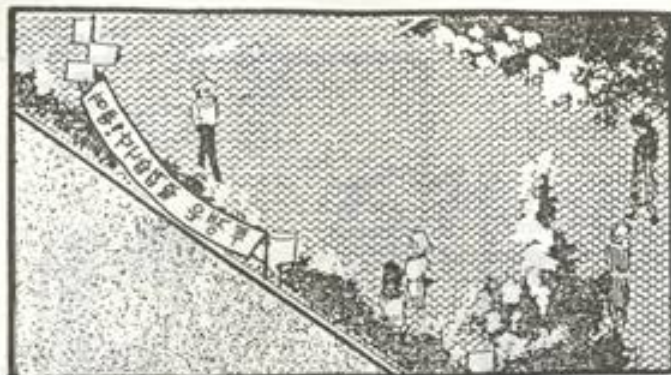
야호! 합격이다!
드디어 나도 대학생이 되는거야.
아- 그동안 흘려보낸 꽃같은 세월.
멋있는 대학생생활을 해야지.
아주 멋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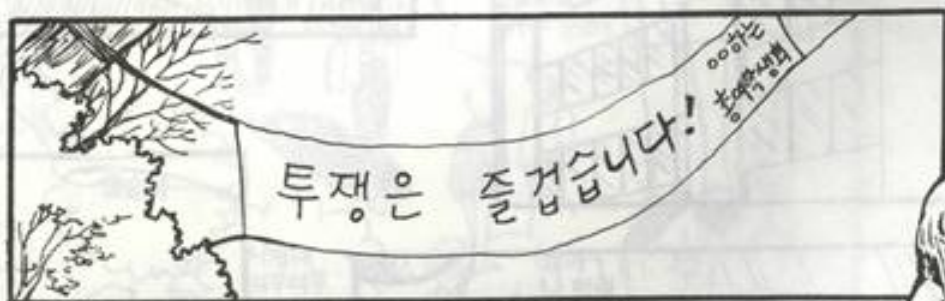
그로부터 3개월후...

겨우내 잠들어 조용했던 교정의 구석구석에도
새봄이 찾아왔는데...
지수의 마음에 찾아드는 웅장미를 적막함.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오는 푸른 빛
부드러운 바람이고 만년의 동양양
부풀어 있는 플레카드.
푸른 빛 플레카드에
선명히 박혀있는 한글씨.



갈피를 못잡고 헤메이는
갸스문 지수의 눈에 띄는
플레카드 위의 글씨.
깁깁한 방의 어둠속
하나의 불빛처럼
거수의 앞쪽에 나타난
하나의 경이로움.
<투쟁은 즐겁습니다>



왜? 무섭게만 보이는
투쟁이 즐겁다는건지?
저도 누가 물어놓았지?
<동양양>
많이 들어봤는데
뭘 하는 곳이지?
지수는 무엇을
결심한 듯
눈이 반짝 빛난다
... 찾아가서 꼭 물어보리라.



투쟁이 즐겁나?



선임생이시군요.
무슨 일로 왔죠?





"살은 물어볼 게 없어요—
투쟁은 즐겁습니다만,
그 맛이 원 좋아하는 거요?"
조금은 맹랑하고
조금은 엉뚱한 신입생의 질문.

그러나 선영은 안다.
이렇게 사회하게 보이는
질문 하나하나가 모여 학생회를 이룬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지수의 질문은
사회하다 한 수 없는 것...

지수의 질문은 어떻게 선영의 문제.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있는 삶인가의 문제
인간이라면 반드시 인생을 두고 외쳐야 할
본연의 그 고통을 지수는
바로 시작한 것이다.



"그 맛의 뜻은
투쟁 속에 함살이 있다는 겁니다."

"투쟁 속에요?
도대체 왜 그렇죠?"
목마른 자의 호소처럼
지수의 웃음은 적막하다.

"그건 영원이란 존재자체가
영양과 에너지는 거부하기 때문이죠."

억압? 예속? 통제? 양제? 저항?
지수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다.



투쟁은 사랑의 격렬한 표현이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코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즐거움 거 아니예요?

지수는 자기도 모르는 새
낙이나 함살은 선영의 말에
조용히 잠겨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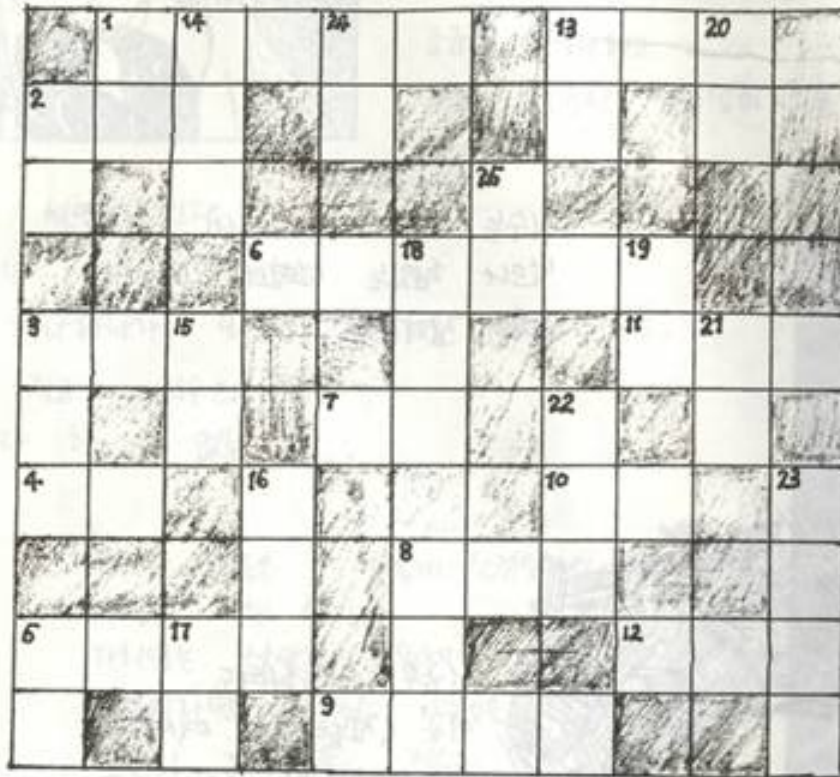


지금은 아득하여도
이곳 <전농벌>의 역사 이룬
그 수 많았던 날들.
그 수 많았던 청년들의 얼굴
펼치어지리라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먼 훗날
역사의 갈피 갈피마다
후손들의 손을 잡고
다시 찾은 이곳
우리들의 전농벌에서.

<끝>

맞추거나 맞거나!



1.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자치조직
2. 통일 열기 담은 국토순례단
3. 총여학생회장이름
4. 전북의 수출자유지역은
5.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활동
6. 윤희조 정신대문제에 맞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8. 민주화실천운동가협의회

9. 영삼이 종필이 짝짜꿍
10. '사랑이 뭐길래' 남자주인공
11. 바늘도둑이 ... 되죠.
12. 9살때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13. 통일의 꽃

세로 열거

1. 3월말에 있지요.
2. 우리의 소원은 ...
3. 윤희조는 무슨때
5. 사회구성의 기본단위
7. ...와 춘옥
8. 현재 집권여당
13.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14.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의
15. UIP직배호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

16. 서울시립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17. 원시공산제의 다음단계는 ..제
18. 일제가 국민학생까지 이 명목으로 끌고갔죠.
19.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죠.
21. 칼라 ...
22. 백만학도의 자랑
23. 자주여성 민주 ...
25. 서로 타협을 보죠.



이웃을 구해내서
 나는 부끄러움에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충장안기무정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알과 콩알과 웃었다
 동료들과 노조임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천제적인
 기업주의 짓대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랑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두명이 꼬여 끝까지 실천속에서 나는 저들의 자괴를
 배설해야 할 노동자는 어운을 품는 게 아니라
 아내의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어불을 형을 구해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지른다